

바나나 우유와 군밤 세 개

김 성준

열차 승무원이 되는 것은 나의 꿈이었다. 어릴 적 기차길 옆 동네에 살았던 나는 매일 기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며 자랐고, 철길 가에 서서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손을 흔들고 서 있었던 적도 많았다. 그토록 동경하던 기차에 몸을 실을 수 있는 때는, 방학이 되어 먼 시골의 할머니 댁으로 갈 때였다. 시골의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서는 덜컹거리는 비둘기호에 5~6시간씩 몸을 실어야 했지만, 고속버스와 달리 열차 안에서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칸막이가 없는 긴 의자에 조그마한 몸을 쭉 누일 수 있는 것도 내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열차 안에는 홍익회 아저씨가 망에 싸인 굴이며, 삶은 달걀이며, 그 밖에 전기구이 오징어, 밤양갱 등 각종 군것질거리가 가득 담긴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였는데 그것 또한 나에게서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장시간 이어지는 지루한 여행으로 칭얼거리는 나에게 어머니께서 사 주시는 카스텔라와 바나나 우유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여행을 하게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어릴 적 희망처럼 철도청에 입사하여 철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입사하여 맨 처음 한 일은 개표와 매표였으나 철도 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표 업무 이후 넓은 역 구내에서 기관차, 객차, 화차에 매달려 열차를 조성하는 업무도 담당하였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열차 차장 시험에 응시하여 어릴 적 꿈이었던 열차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열차승무원으로 발령 받았을 무렵은 KTX 열차가 아직 일부 구간만 개통되어 있어 손님들이 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던 때였다.

열차 승무원으로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추석연휴 기간은 열차를 이용하려는 손님들로 대만원을 이루는데, 특히 연휴 시작일과 마지막 날은 귀성, 귀경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된다. 나는 추석연휴 기간 내내 열차를 타며 승무를 계속하였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부산발 서울행 낮 시간대 무궁화호 열차 승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추

석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없어 아쉬움은 컸지만 추석연휴를 즐겁게 보낸 사람들을 집으로 무사히 모셔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승무를 하였다.

무궁화호 열차는 보통 객차 7량으로 운행되지만, 그 날은 추석 연휴의 귀경 인파를 감안하여 객차가 9량으로 증결되어 승강장에서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결에도 불구하고 연휴 마지막 날 넘치는 귀경인파로 인해 열차 안은 부산역 출발부터 이미 입석 손님들로 넘쳐났고, 다음 정차역인 구포역 이후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다.

딱딱 들어찬 객실 안을 비집듯이 순회하면서 승차권 검표, 객실 내 적정 온도 조절, 화장실 청결유지, 그 밖에 손님들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하며 다니다 보니 열차는 어느새 대구역을 지나 왜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관역에 도착할 무렵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화장실을 점검 중인 나를 불러 세웠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여쭙봤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다. 잠시 망설이고 계시던 할아버지는 이윽고 “저...자리가 있으면 한 자리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건네셨다.

하지만 그 날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로 입석 승차권마저 동이 날 지경인지라 남아 있는 좌석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표정에 대고 차마 좌석이 없다고 바로 거절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내가 그냥 부탁하는 것은 아니고...이거 얼마 안 되지만 꼭 좀 부탁하네.” 라며 내 손에 꼬깃꼬깃한 오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어리둥절했다. ‘어르신께서는 오늘 같은 날 좌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딘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꼭 앉고 싶으신 건가? 혹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서 돈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신 건가?’ 그 짧은 순간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돈을 건네주시는 할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말씀드렸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정말 좌석이 없습니다. 요즘은 승차권이 모두 전산 처

리되고 있어 저희가 좌석을 빼놓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자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뒷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역시나 하는 체념한 표정이었지만

“그런가요? 그래도 혹시 자리가 생기거든 꼭 좀.....”

하고 말끝을 흐리시며 재차 부탁을 하셨다. 할아버지께서 앉으실 자리가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추석연휴 마지막 날의 콩나물시루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좌석은 정말 구해지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에서처럼 누군가 선뜻 좌석을 양보해 줄 가능성도 없어

“글쎄요, 설령 누군가가 승차권을 반환하여 빈 좌석이 생긴다고 해도 역에서 줄 선 사람들에게 바로 판매돼버려 구해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수원역이나 영등포역쯤 가면 좌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린 뒤 다른 곳으로 가려 할 때였다.

할아버지의 뒤쪽 통로 벽에 초등학교 1~2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기대고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등지고 걸어가는 내 귀에 아이의 투정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우리 자리 없어? 나 발 아프단 말이야. 이잉~ 할아버지 괜히 따라왔어.” 그 소리에 나는 멍칫하며 할아버지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할아버지께서는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손자를 데리고 가시는 듯했다. 처연히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가에 언뜻 물기가 비친 것도 같았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며 어린 시절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어머님께 칭얼대며 떼를 쓰던 내 모습이 오버랩 되어 떠올랐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뒤돌아서서 할아버지께 정중히 말씀드렸다. “어르신, 보시다시피 오늘은 좌석을 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후 어린 손자를 달랬다.

“아저씨가 자리가 있는지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줄래? 할아버지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 같구나.”

내 말에 찡끔 커다란 눈망울로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를 보며 혹시 반환되는 승차권이 있는지 휴대용 단말기로 조회해 보았지만 역시 좌석은 없었다.

난감하던 찰나 갑자기 방송실이 떠올랐다. 무궁화호 열차는 보통 7량 객차 편성에 방송실은 3호차에 위치하고 있다. 방송실은 운행 중 각종 안내 및 정차 방송을 하는 공간으로 여객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는 장소다. 그런데 이날은 객차가 9량 편성되어 있고, 8호차에 사용하지 않는 방송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었다. 8호차 방송실은 임시 객차이다 보니 방송 기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로로 긴 승무원용 의자만 1개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어르신, 사용하지 않는 방송실이 마침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앉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하지만 그 곳은...”

하며 할아버지께서는 의아해 하셨다.

“괜찮습니다. 거기는 사용하지 않는 방송실이니깐요. 제가 8호차로 먼저 가 있을 테니 손자를 데리고 8호차 방송실로 오세요.”

라고 말씀드린 뒤 8호차 방송실 쪽으로 향했다. 8호차 방송실은 외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가 놓았기 때문에 입석 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잠시 후 뒤따라온 할아버지와 손자를 빈 방송실 공간에 앉혀드린 후

“어르신,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 방송실이지만, 다른 입석 고객들 이목이 있으니 안에서 문을 잠가 주시고 되도록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는 방송실 문을 닫았다.

마지막 칸인 9호차 쪽으로 순회를 한 바퀴 도는 길에, 마침 통로를 지나는 흥익회 판매 카트가 보여 바나나 우유 2개를 샀다. 돌아오는 길에 8호차 방송실 문을 두드린 후 안을 살펴보니 손자는 이미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꿀아 떨어져 있었다.

“어르신, 이거 별 거 아니지만 손자분과 같이 드세요.”

라고 말씀드린 뒤 바로 문을 닫았다.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보고 뭔가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았으나 다시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아버지의 표정으로 보아 감사의 인사라도 하실 것 같았지만, 그런 일에 인사를 받는다는 것이 썩스럽기도 하고 곤히 잠든 손자가 깰지

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바쁜 업무로 두 사람을 다시 마주치진 못했다. 열차가 무사히 서울역에 도착한 후 내리지 못한 손님은 없는지, 두고 내린 물건은 없는지 종착 순회를 하던 중 8호차 방송실 문을 열어 보았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이미 어디에서 내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방송실 의자 위에는 반으로 접혀있는 하얀 종이와 그 위에 은박지로 싸여진 조그만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접혀 있는 하얀 종이를 펴 보니 -오래되어 내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손자가 쓴 듯 삐뚤삐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쓴 글씨로 '아저씨 바나나 우유 맛있었어요. 저도 커서 기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보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은박지로 싸여진 덩어리에는 조그마한 군밤 세 개가 담겨 있었다. 그 날 서울 승무원 숙소로 향하는 길에 여객전무님과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열차 안에서 뒷돈을 주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고 했다. 아마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에게 돈을 건넨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 같은 일을 겪지 못했지만 그 때 그 꼬마의 편지와 군밤은 아직도 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때 할아버지가 건네는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비록 조그만 액수이긴 하나 부정수입의 유혹을 물리친 부끄러움 없는 철도인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할아버지께서는 철도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내는 계기를, 어린 손자에게는 아름다운 기차 여행의 추억을 가지게 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